

영원한 도움

소식지 Vol.15



VOL.5

발행일 2026년 3월 1일
발행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발행처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15라길 2-18
전화 (02) 2171-1611
메일 solph70@hanmail.net
홈페이지 <https://www.solph.or.kr>
인쇄처 세가출판사
비매품

03 권두언 |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마음을 드높이

- 06 교회와 함께 | 기도는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 10 말씀과 함께 | 기도로 빛은 형상, 삶으로 남긴 성상
- 14 묵상과 나눔 | 지금 여기에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이 선교
- 17 가톨릭 상식 | 대희년을 막 지냈는데,
‘성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해’는 무엇인가요?
- 18 책과 함께 |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 20 문화 속으로 | 영화 <밤에 우리 영혼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4 선교 화보 | 필리핀
- 26 선교 이야기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담 너머에 사는 아이들
- 30 선교 체험 | 연민으로 빛어진 꿈
장학생에서 간호사가 되기까지
- 36 선교지 소식 | 페루 · 베트남 · 카자흐스탄
- 44 사도직 이야기 | 제의제작실/재봉실

한마음 한뜻

- 52 수도회 소식
- 56 성모자매회 소식
- 62 수도원 체험 |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 64 후원자 명단
- 66 국내외 선교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1마카 2,61



2026년에도 따스한 봄 햇살을 내리시는 하느님께서서

『영원한 도움』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길, 또한 도움의 손길로 연결된
선교지의 모든 분께 하느님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회년에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어 약하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걸으며
하느님의 자비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희망과 기쁨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서
올해도 약한 새싹과 함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겨울을 견디고 올라온 새싹은 어느새
아름다운 꽃잎을 피워냅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꽃잎이지만, 우거진 녹음과
풍성한 열매의 희망을 품고 그 기쁨을 자랑하는 듯합니다. 꽃잎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하고 기쁨과 희망을 전해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 강한 연대감으로 사랑의 일치를 이룹니다.

세상은 여전히 연약한 이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기쁘게 걸어가는 여정이 있어 행복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은총의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연결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시는
『영원한 도움』 가족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수녀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필리 2,5),

즉 하느님 앞에 가난한 마음, 이웃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십자가상 지극한 사랑의 마음 등을 묵상하며 닮아가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영원한 도움』 가족들도 저희와 연대하며 하느님 사랑이 확장되기를 빕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마음을 드높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집
《기도, 새 생명의 숨결》중에서



「나의 주님」, 최봉자 레지나 수녀 작품

기도는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글 | 양성부



기도의 본질

기도는 무엇보다도 대화,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 볼 때 비로소 충만한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인간을 다른 이들과,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하나 되게 합니다. 누군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바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향과 인내와 결심이 필요한 노력입

니다. 실제로 우리의 한계와 죄짓는 성향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에 힘입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창조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선교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 가는 최상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깊이를 더해 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시느’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시느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닮아 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흡송

우리는 효율만을 추구하는 세계에서 흡송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청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흡송은

유일하신 **하느님 앞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값으로 따지거나 흥정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흡송의 정신은 성경의 첫 계명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흡송하라”. 이는 아무런 청원도 감사도 찬미도 없이 몸을 낮춘 겸손한 마음으로 오로지 흡송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는 약간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좋은 실천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유용한 것을 얻으려는 신심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의 자비로우신 활동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굶어살피 주소서.” 기도는 믿음과 사랑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교회를 맡겨 드리고, 사람들을 맡겨 드리고, 상황들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실까?’, ‘하느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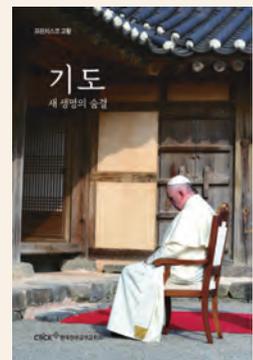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나?', '하느님께 '간곡히 조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루카 18,1-8 참조).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 다거나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러

나 악에 맞서는 싸움은 길고 힘겨운 싸움이어서, 모세가 그러하듯이, **인내와 참을성**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탈출 17,8-13 참조). 그렇습니다. 날마다 맞닥뜨려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기도는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항구한 기도**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당신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싸워 나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한 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출처 : 프란치스코 교황, 《기도, 새 생명의 숨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BCK), 2021



*『기도, 새 생명의 숨결』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2026년에는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네 번에 걸쳐 실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로 빛은 형상, 삶으로 남긴 성상

글 | 최봉자 레지나 수녀



작업 중인 최봉자 레지나 수녀

모두 다 내어 놓는 삶이기를

제 안에서 수도자란 모든 것을 끊고 온전히 비워내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모자상을 큰 본당에 봉헌했을 때, 저는 사인(sign)을 남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며, 모두 내어 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작품이 늘어나면서 언제 만들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내가 만든 것인지 다른 누구의 것인지 묻고 확인하는 상황이 되어 하는 수 없이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가톨릭 미술전에 작품을 내면서도 전시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전을 열겠다는 마음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자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단순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수도자이자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갈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수도회 본원에 새 성당을 지었을 때 아주 평범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수녀들이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제 작업이 뭐가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한두 해가 지난 다음에야 본원에서 피정을 하고 돌아간 수녀들이 이전 소임지 성당에서도 우리 성당 십자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작품만 생각하며 가야 할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가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민을 안고 이탈리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사제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작품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긴 그렇다며 웃어넘겼는데, 곱씹어 볼수록 맞는 말이었습니다.

작업의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

성상 작업을 할 때는 작품을 만든 제가 아니라 교우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성상, 누구든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상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사 기도했습니다.

1976년 이래 초기 10여 년 동안 작업했던 성모상을 지금 보면 좀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처음’이라는 순수함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최근 작업은 세련되었지만, 그만큼 약해진 부분도 눈에 띕니다.

십자가의 길 14처 부조 작업은 예수님의 수난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



「제 뜻대로 마시고, 한지에 프린트, 2025

입니다. 그 고통을 담아내기 위해 브론즈, 나무, 테라코타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그만큼 표현이 넓고 깊어졌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저에게는 작업이 곧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작업이 봉헌된 14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도하다 보면 1처부터 이상한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자리에서 제 작업의 아쉬움이 눈에 보이니 수도자로서 참 힘듭니다.

저는 주로 예수 성심상, 성모상, 그리고 성모자상을 작업했습니다. 성상 작업을 하기 전에 드로잉을 많이 하는데 의식적으로 열중해 그러도 한두 장만에 바로 형상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우고, 더 맑고 더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다시 그려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쪽지에 낙서하듯 그린 선에서 문득 원하는 형상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것이 나온 것이겠지만 제가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참 잘 나왔다’고 느끼며 곧장 완성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작품 뒤에는 늘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남지만 저는 언제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작업해 왔습니다.



「예수 성심상, 나무, 2000



「성모상, 대리석, 2015

성모자상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성모님 혼자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마리아도 성모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본당에서 성모자상을 부탁받

을 때면, 가능하면 성 요셉까지 함께 계신 성가정상을 권하곤 했습니다. 성 요셉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인입니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곁에 성 요셉이 함께 계신 모습은 우리 마음을 훨씬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느낍니다. 더불어 성 요셉상만을 따로 작업할 때는 성경 속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여드레 만에 성전에 봉헌되었을 때, 가난한 이들이 바칠 수 있었던 제물이 비둘기 두 마리였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 요셉이 비둘기 두 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가슴에 소중히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자주 다룬 주제는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안고 계시거나 어깨에 메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얼굴 표정과 손길에 담긴 마음이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기도와 집중 그리고 그 평온이 작품으로 전해지기를

저는 작가라기보다 우선 수도자이고, 수도자라기보다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 전 묵상을 하며 저는 작품을 해야 한다는 마음마저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 안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분심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흐름에 휘말리지도 않은 채 작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수도생활에서 오는 그 집중과 평온이 작품을 통해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결국 자기 삶을 드러냅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수도자의 삶 자체가 작업의 바탕이었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고, 순수하게 작품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지난 50년은 저에게 너무도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수도자이자 조각가로 지내온 최봉자 레지나 수녀의 50년 삶과 작업을 회고하는 생애 첫 개인전 <하늘 향한 그리움>이 서울 서초구 흰물결갤러리(2025년 12월 4일~2026년 2월 28일)에서 개최되었다. 이 글은 전시회를 위해 진행된 작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인터뷰 영상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홈페이지(<https://solph.or.kr/News/view/news202512fn1>)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이 선교

글 | 권미소 마리보스코 수녀



불편한 몸으로도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들의 카비테 공동체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파견된 이곳이 곧 우리의 선교지이며,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수도자로서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선교’라는 말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외 선교, 낯설고 먼 땅의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5년 7월 8일,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필리핀 선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곳에서의 두 달은 ‘선교’에 대한 저의 시선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특히 카비테 공동체에서의 4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이 새로웠고, 그 안에서 만난 아이들은 하나같이 제게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표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매 순간 복음이 선포되는 살아 있는 선교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침 없이 흘러간 하루의 끝에 겨우 잠자리에 들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에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엔 아이들의 울부짖음으로 다시 하루를 열어야 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때론 흐르는 시간을 붙잡고 싶을 만큼 모든 순간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음을, ‘우리’라는 이름 아래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찬란한지 깊이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활짝 피어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또 하나의 선교요, 지금, 여기-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저를 통해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선교 지임을 깨닫도록 한 시간이었고, 저를 당신 사랑의 도구로 이끄셨던 하느님의 섬세한 손길이 함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는 결국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저는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It’s OK! No problem!” - 사랑으로 응답하는 마음

또한 제가 이미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삶의 자리 안에 다시금 깊이 인식하게 해 준 은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 그마저도 반나절에 불과했지만 한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언어에 대한 걱정으로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제비뽑기를 통해 방문할 가정이 정해졌을 때,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하느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트라이시클을 타고 좁은 골목을 지나, 뗏목이나 다름없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도착한 집은 부부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가난하지만 단란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어린 동생은 옆집 할머니 댁에 잠시

가 있었기에, 자매와 저는 저녁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이라기엔 어설피고, 둘이 같이 있기 어려울 만큼 좁았던 그 공간에서 저는 생선을 굽기로 했습니다. 앞치마가 없어 조심했지만 사방으로 튀던 기름이 결국 제 수도복에도 얼룩을 남겼습니다. 순간 난처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계속 생선을 구웠습니다. 그 상황을 본 자매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볼 때 제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It’s OK! No problem!”이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 제 마음도 정말로 관찮아졌습니다.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데리러 갔을 때도 엄청난 폭우에 오가는 동안 온몸이 다 젖어버렸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은 ‘It’s OK! No problem!’이었습니다. 문득 이 단순한 말속에, 선교사로서 제가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가 담겨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수도복의 얼룩을 지우느라 애쓰면서도 그 시간은 불편함이 아닌 기쁨으로 남았습니다.

더불어 걱정했던 언어의 장벽도 하느님 안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고, 말보다 더 깊이 전해졌던 마음의 언어는 놀랍도록 따뜻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질을 넘어선 나눔과 만남은 그 자리를 충분히 채워 주었고,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의 삶에 담긴 사랑과 신뢰였다는 것을 하느님께서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던 한 가정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과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나누는 기쁨은 제게 큰 은총으로 남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작은 배려, 함께하는 식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를 기꺼이 맞아 준 가족들의 진심 어린 환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필리핀 해외 선교지에서의 가장 큰 체험은, 선교가 어딘가로 멀리 떠나는 특별한 여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 그 자체임을, 그리고 그런 삶의 순간들 안에 늘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달의 여정,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글로 다 담아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과 수도 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당, 이탈리아 아시시

대희년을 막 지냈는데, ‘성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해’는 무엇인가요?

2025년은 정기 희년(대희년)으로 온 교회가 하느님께 돌아오는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은총과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새 교황 레오 14세가 선포한 2026년 ‘성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해’는 희년의 축복을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도록 이끄는 은총의 연장선으로 지내기 위한 특별 희년입니다.

희년은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영적 힘을 쇄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은총의 시기입니다. 가톨릭교회는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첫 희년을 선포한 이래, 1470년부터는 25년을 주기로 정기 희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정규 희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한 때에 희년을 선포하여 지내기도 합니다. 2015년 자비의 특별 희년, 2018년 한국 평신도 희년 등이 그 예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선종 800주년을 맞아 2026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지내게 되는 이 특별한 해-특별 희년을 통해 교회는 성인이 몸소 실천한 가난과 겸손, 평화의 영성을 오늘날의 세상 안에서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세상 곳곳이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때에 교회는 이 여정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우리가 죄의 상처를 씻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글 | 성서와함께 편집부 장운이 마리아가페 수녀



장프랑코 라바시 지음 · 안소근 옮김 | 성서와함께

오래된 기도

시편은 오래된 기도이다. 유대인들은 시편으로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 드렸고, 시편으로 하느님께 고통스러운 간청을 올렸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편으로 기도했다. 사순 시기의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파스카 식사를 마치고 올리브산으로 가기 전에 부른 ‘찬미가’는 시편이었다(마태 26,3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신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곧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라는 말씀도 시편 22,2을 인용한 기도라고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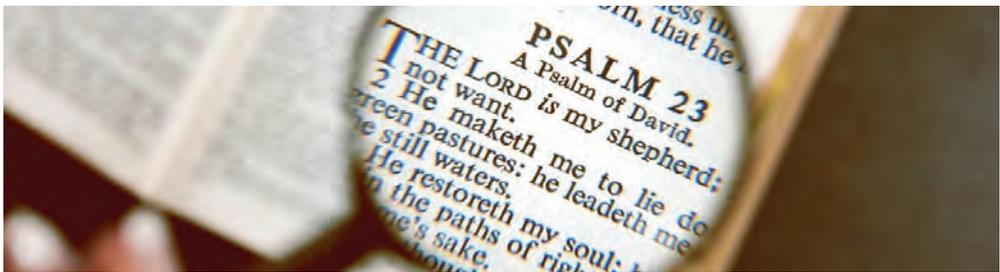
시편은 그리스도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사 전례에 쓰이는 노래인 입당송, 화답송, 복음 환호송, 영성체송에는 시편이 주로 인용된다. 교회의 공적 기도인 성무일도, 곧 시간 전례를 구성하는 주요 기도문도 대부분 시편이다. “성무일도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의 모든 흐름이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다”(전례 헌장 84항). 사제와 수도자는 날마다 개인이나 공동으로 이 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으며, 일부 평신도는 기꺼이 이 기도에 참여한다. 이렇듯 시

편에는 하느님 백성이 오랫동안 고백해 온 신앙이 담겨 있다.

완전한 기도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집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배어 있다. 그래서 프랑스 시인 폴 클로델은 시편 기도를 무지개 색깔에 빗대었다. 시편집의 3분의 1은 위기의 때에 바치는 탄원 기도이다. 우리가 삶에서 행복보다 고통을 강렬하게 감각하고, 하느님께 환희에 찬 감사 기도보다 시름겨운 청원 기도를 더 많이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신앙인은 어둠 너머의 빛을 희망하기에, 하느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기에 그분께 매달린다.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편도 하느님의 정의를 바라고 복수를 그분께 맡기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 책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는 시편이 제시하는 기도 여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 인간 역사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자취를 찾는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사도 17,28). 시편은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하느님 현존을 향한 끊임없는 마음속 외침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오는 인류의 부르짖음에 나의 목소리를 합하는 것이다.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하느님 앞에서 쓰러져 울었던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날 동료 인간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이다.



함께 공감 나누기 해봅시다

- 《매일미사》에 나오는 그날의 시편 기도를 소리 내어 바쳐 봅시다.
- 일상의 희로애락을 담은 나만의 시편 기도를 써 봅시다.

그래, 함께 해요 영화 <밤에 우리 영혼은>

글 | 이대현 요나(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제목 | 밤에 우리 영혼은(Our Souls at Night, 2017)

장르 및 등급 | 로맨스 · 드라마, 15세 이상

러닝타임 | 103분

감독 | 리테쉬 바트라

출연 | 제인 폰다, 로버트 레드포드, 마티아스 쇼에나에츠,
주디 그리어

밤이 가장 힘든 영혼들의 이야기

5월의 어느 날 저녁, 미국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 오랫동안 이웃해 살았지만 특별한 교류가 없던 이웃집 여자 애디(제인 폰다 분)가 루이스(로버트 레드포드 분)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녀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잘래요.”라는 뜬금없고 황당한 제안을 한다.

루이스는 당황한다. 아무리 70대 노인들이지만 남녀가 ‘같이 잔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애디가 바라는 것은 단지 외로운 밤을 견뎌내기 위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고 싶었을 뿐이다. 애디는 말한다. “밤이 가장 힘들잖아요.”

둘은 오래전에 배우자와 사별했다. 텅 빈집에서 혼자 대충 저녁식사를 하고, 신문 낱말 퍼즐을 풀고, TV에서 일기예보나 보면서, 이따금 멀리 사는 자녀들의 전화를 받고, 잠자리에 들지만 뒤척이는 시간이 길었다.

“난 외로워요. 당신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애디가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루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제안대로 둘은 침대에 함께 누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든다. 그리고 아침이면 집으로 돌아간다. 결코 걱정이나 도발이 아니다. 그 나이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스스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알고 봤더니 자신이 온통 말라죽은 것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각자가 쌓은 것들, 자기만의 삶과 연결된 것들은 좋든 싫든 그대로 두면서 ‘거짓’없는 대화를 통해 다름과 같음을 확인하고, 과장된 연민이나 공감 없이 위로한다. 그것만으로도 둘의 영혼은 파스한 위안과 평화, 기쁨으로 채워지고 윤기를 되찾는다.

혼자 늙어간다는 쓸쓸함에 대하여

상처 없는 영혼은 어디 있을까. 애디와 루이스 역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있다. 애디는 교통사고로 딸을 잃고 남편, 아들과도 단절된 절망 속을 살아간다. 루이스는 자신의 외도로 아내와 딸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꿈을 포기한 회한이 있다. 신음 한번 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들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애디와 루이스. 그래서 보고 있는 우리의 가슴이 더 아프다.

둘의 도전이 오래갈 수 없으리라는 걸 그들도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자녀들의 노골적인 반감과 몰이해 앞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여느 할아버지, 할머니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곳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새로운 관계와 시간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순간 ‘밤에 그들의 영혼’은 다시 쓸쓸해진다는 사실을. 날로 늘어나는 고독사와 노인 자살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늙을수록 혼자일수록 영혼은 더 방황하며,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계속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16항 중에서



성탄 파티 후 귀가하는 아이들
필리핀 나보마스 아고라 시장 앞 2025. 12. 20.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소서!



① 필리핀 성서모임 창세기 그룹원 아이리위와 그레이스 2025. 11. 7. ② 필리핀 성서모임 첫 성탄 피정 공동체 미사 후(왼쪽부터 정 초롱 아녜스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윤홍민 신부, 황지현 마르타 수녀, 김 루체 수녀) 2025. 12. 28. ③ 신나는 율동 시간 방문 방문 중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는 총원장 수녀님과 최 요세핀 수녀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 교실 2025. 11. 17. ④ 성탄 파티 선물을 가득 안고 기뻐하는 아이들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 교실 2025. 12. 12. ⑤ 한국순교복자회 수사 현장 실습 김재석 모세 수사과 아이들 린창고 급식소 2025. 11. 10.

| 나보따스 | 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정명숙 유딧 수녀,
김민정 루체 수녀, 최지영 요세핀 수녀



6



8



9



7

⑥ 급식 시간 아이들에게 우유를 나눠 주는 정 유딧 수녀 프로퍼 급식소 2025. 10. 21. ⑦ 성탄 파티 선물을 받고 환호하는 아이들과 후원자들(왼쪽부터 흥인길 요셉, 함오식 마르띠노, 허희, 김익수 베드로) 프로퍼 급식소 2025. 12. 20. ⑧ 성탄 잔치 린창고 급식소 2025. 12. 20. ⑨ 급식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 2025. 12. 18.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글 | 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판자로 이어 붙여 만든 방 한 칸이 집인 아이들

필리핀 나보파스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곳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장학생 관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필리핀 나보파스에서는 급식소에 오는 극빈 가정 아이들 중 품행과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해마다 몇 명씩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하는 개인 면담을 통해서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과 동화되기 위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초등 장학생들의 여름 행사를 위해 부모의 서면 허락이 필요해 각 가정을 찾아다녔습니다. 12명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한두 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학생들의 주거 환경은 조출하다 못해 허술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장학생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보았지만 거의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하지만 작은방 한 칸이 전부인데, 그 방을 쪼개어 다락을 엮고, 그것도 부족하여 벽에 그물을 걸어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방 한 칸에

아이들이 보통 네댓 명씩 되다 보니 어른은 몸을 누일 공간도 찾아볼 수 없는 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판자로 지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 어떤 사적 공간도 없었고, 끊임없는 소음과 불결한 위생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대화하며

집이 그렇게 좁은데도 집집마다 개나 고양이가 방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가족들을 지키는 안전 장비인 셈이었습니다. 단칸방으로 된 집에 담이 있을 리도 없고, 허술한 나무 문짝 하나가 집 안과 밖을 구분하는 유일한 도구이자 경계인데 날씨가 항상 더우니 그 문마저도 열고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장학생들은 생활을 하고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라도 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수녀원 한 곳에 공부방을 만들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와서 공부하라고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왜 공부방을 이용하지 않는지 물었더니 부끄러워서라고 합니다. 예상 밖의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탓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대화해도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꿈나무들이기에 바른 정신으로 올바르게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대화하며 타일러 봅니다.



Ladyjane 가정방문

담 너머에 사는 아이들



글 | 정명숙 유닛 수녀

가난도 해치지 못한 아이들의 행복

담 너머에는 본성이 착하고 유쾌한 아이들이 삽니다. 아이들이 사는 동네로 가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가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담을 넘어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제법 높은 담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철제 사다리를 아이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도 잘도 넘습니다.

세계 3대 빈민 지역 중 하나이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지독한 가난마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곳, 이곳에는 가난 때문에 빚어진 눈물겨운 사연들이 삶 곳곳에 녹아 있지만 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지나칠 때에도 따뜻한 표정으로 눈인사를 하고, 부대끼는 가족, 친척이지만 운명 공동체처럼 돕고, 축복을 청하는 묵직한 신앙이 이들의 일상을 행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누울 자리도 부족하지만,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살며, 팔과 다리에 온갖 벌레 물린 자국들이 가득해도 아이들의 눈망울은 선명하기만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취약하여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 좁은 거리가 걷기도 힘들지만,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그 길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 아이들이 사는 동네로 가는 지름길인 철제 사다리를 정 유닛 수녀가 내려간다.

이 아이들 중에 우리 유치원과 급식소에 오는 아이들은 인근 지역 아이들을 포함하여 260명이고, 장학생은 70명입니다. 아이들은 도로 쪽으로 담을 넘어 학교와 급식소에 옵니다. 도로 쪽에서 담을 바라보면 담 너머 가난한 마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만들지 않은 것일까요? 철제 사다리를 오르내리다 다쳐 김스를 한 아이, 이어진 8차선 도로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아이의 소식은 두고두고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배가 불러야 꿈도 꾸지!

급식소에 오는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내가 앉아 있는 탁자에서 멀리 앉을 법도 한데 코앞에 식판을 들고 와서 밥을 먹으며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만나다 보면 미운 새아빠 이야기도, 병이 중하지만 병원에 못 가는 집안 사정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 이름도 못 쓰는 이유도, 고아가 된 외로운 아이의 배고픔도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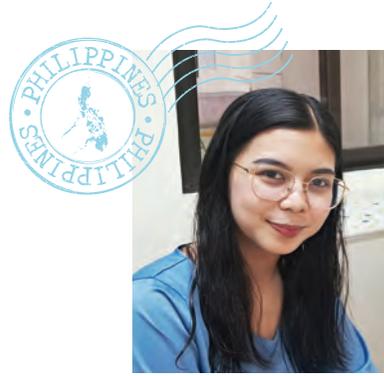
‘그래, 우선 밥부터 먹어야지, 많이 먹고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꿈도 꾸어보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도 먹는 아이들을 이해하며, 우유도 비타민도 더 구해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나이에 비해 몸집은 작지만, 가슴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식사 전후 기도를 하면서 건들건들 춤을 출 정도로 흥이 많은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조차 부족하고,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아이에게 꿈을 가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가난을 구제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나 자신도 오랜 시간 해법을 고민해 보았지만, 지금은 기회가 될 때 가장 작은 사랑일지라도 자주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삶이신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며, 그분께서 아이들에게 기적을 이루신다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 주시는 후원자들에게 아이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골목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아이

연민으로 빚어진 꿈



글 | 아비게일(따하난 니 마리아 교사)

길에서 꿈꾸고 그리던 나의 미래

어릴 적부터 제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저에게 자연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공부를 도와주고 방향을 잡아 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자라났고, 그 꿈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따하난 니 마리아(마리아의 집)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빈곤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매일의 삶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끊임없이 배우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곳곳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은 밝은 미소, 따뜻한 포옹,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피곤한 날에도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신나하고, 작은 성취를 이루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작지만 그 소중한 순간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보여 주는 그림과 편지, 그리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 주는 미소를 통해 가르침은 교과서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은 신뢰와 관계,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배웠

습니다.

또한 따하난 니 마리아에서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녀님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 주셨고, 그분들의 삶은 인내와 겸손, 그리고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열한 살 때 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던 저의 어린 시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따하난 니 마리아에서의 시간은 제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깨닫게 해 주었고, 가르침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르침과 봉사, 그리고 연민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A Dream Shaped by Compassion

Growing up, I was always surrounded by children, and even at a young age, teaching them felt natural and fulfilling. Helping with simple lessons, guiding them, and caring for them slowly shaped my heart and strengthened my dream of becoming a teacher. As I grew older, that dream only became clearer.

When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work at Tahanan ni Maria, I accepted it wholeheartedly. There, I encountered a reality I had never fully understood before. I met children from indigent families who faced daily uncertainties, yet continued to smile, learn, and hope. Witnessing their resilience despite having so little deeply moved me. Teaching them brought a joy that words can hardly express.



진정한 가르침은 교과서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필자는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수업 중인 필자

Each morning, the children welcomed me with bright smiles, warm hugs, and eagerness to learn. Even on exhausting days, their happiness renewed my strength. Simple moments—listening to their laughter, seeing their excitement when they understood a lesson, or celebrating their small achievements—became my greatest rewards. Their drawings, letters, and completed activities filled me with pride, while their smiles often spoke more powerfully than words. Through play, songs, and stories, I learned that teaching goes beyond textbooks; it is built on trust, connection, and shared joy.

I was also deeply inspired by the sisters at Tahanan ni Maria. Their tireless dedication showed me that teaching is not limited to the classroom. They provided education, care,

discipline, and unconditional love, always present for the children as if they were their own. From them, I learned patience, humility, and selfless service—lessons no textbook could teach.

These experiences reminded me of my childhood, especially when I began teaching street children at the age of eleven with nothing but a sincere desire to help. Working at Tahanan ni Maria felt like returning to where my heart truly belonged. Through the children and the sisters, I learned to value small blessings and realized the power of love and education. In the end, I understood that teaching is not just what I do—it is who I am. I will always choose teaching, service, and compassion.

Abigail Carlos

장학생에서 간호사가 되기까지



글 | 마리셀 B. 라얀(말라본 병원 및 메디컬센터 간호사)

이룰 수 없던 꿈이 현실이 되던 날

모든 여정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2년,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따하난 니 마리아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설렘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꿔 왔지만, 의과대학은 학비가 너무 비쌌고, 우리가족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 제 꿈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큰 동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등록금이 무료인 공립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꿈꾸던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과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내려놓게 되었고, 결국 나보타스 폴리테크닉 칼리지(Navotas Polytechnic College)에서 경영학과 학생으로 1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따하난 니 마리아 수녀님들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셔서 의과 계열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녀님들은 전공을 간호학으로 바꾸도록 권유하셨고, 등록금과 기타 학업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학비도 비싸고 집에서 멀어 용돈, 교통비, 기타 학업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과 걱정 때문에 부모님께서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진정으로 꿈꾸던 일임을 아셨고, 간호학



말라본 병원 및 메디컬 센터 수술실에서

과 학생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저의 강한 의지와 끈기를 보시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파티마대학교(Our Lady of Fatima University) 간호학과 학생으로 등록하던 날, 최영신 프란츠 수녀님과 함께했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수녀님은 저를 격려하시며, 저를 진심으로 믿고 있고, 반드시 이 과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프란츠 수녀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이후 그것은 제게 큰 동기이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느 전공과 마찬가지로 간호대학 생활 역시 쉽지 않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온 꿈이었습니다. 결

국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끊임없는 인내로, 2023년에 간호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단 한 번의 도전으로 필리핀 간호사 국가시험(Philippine Nursing Licensure Examination)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필리핀 공인 간호사로서, 현재 말라본 병원 및 메디컬 센터(Malabon Hospital and Medical Center)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곳으로 이끄시는 그분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From Scholar to Registered Nurse

It all started back in 2012, when I was still a Grade 6 student. I was one of the students who were fortunate enough to be chosen by our adviser to become a scholar of TNM. I still remember how excited I felt when she announced it. At that moment, I knew it was a great opportunity that would help me continue my education and chase my dreams. Ever since I was young, I had always dreamed of becoming part of the medical field. However, back then, it felt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because

of our situation in life. Medical courses and universities were very expensive, and our family could not afford them. But when I received the scholarship, I felt that my dreams were finally within reach. It gave me hope and motivation, which is why I studied hard from that moment on, all the way until I reached college. And because my family could not afford medical school, I began my college journey in a public college, where tuition was free. However, my dream course was not offered there. I slowly let go of the idea of entering a medical university and enrolled myself instead in Navotas Polytechnic College as Bachelor of Science in Business Administration Student. I finished my 1st year, 1st semester there. And when the Sisters of Tahanan Ni Maria learned about it. One day, they visited our home and spoke with my parents about their plan to help me transfer to a medical school. They encouraged me to shift my course—from Bachelor of Science in Business Administration to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Even though the Sisters of Tahanan Ni Maria explained that they would cover my tuition fee and other school expenses, it was not easy for my parents to agree. They had many hesitations, fears, and worries about the idea of me transferring to an expensive school. They

were concerned about my daily allowance, transportation, and other school-related expenses, especially since the university was far from our home. However, they eventually realized that this was truly my dream program, and they saw how determined and persistent I was to begin my journey as a nursing student. I still remember being with Sister Franz when I enrolled at Our Lady of Fatima University as a nursing student. During that time, she encouraged me and assured me that I could finish the course because she truly believed in me. As I continued my studies, I carried Sister Franz's words in my heart—they became my motivation and my anchor. Nursing school was not easy, just like any other course, but this was the dream I had prayed for. And with our God's guidance and constant perseverance, I proudly finished nursing school in 2023. In 2024, I passed the Philippine Nursing Licensure Examination on my first and only take. And now, I am a Philippine Registered Nurse, currently practicing my profession at Malabon Hospital and Medical Center as an Operating Room Nurse. Truly, God has His own way of leading us toward what our hearts desire—we just need to trust Him and never lose faith

Maricel B. Layan





사막 한가운데 공원을 걷는 수녀들 페루 라차이 국립공원(Reserva Nacional de Lachay)



① 산타로사 성당 견진 청년 피정 도미니코 수도회 의뢰로 산타로사 성당 견진성사 청년들을 위한 피정을 위탁 지도한 박 임마누엘 수녀와 페루 리마 청년성서모임 봉사자, 2025. 11. 1~2. ② 기적의 주님 행렬 비야 엘 살바도르 기적의 주님 공소 앞 2025. 10.

| 비야 엘 살바도르 | 이순옥 글라리아 수녀, 송선영 리사 수녀
 | 깐가리 공소 | 박은경 은경아녜스 수녀,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 리마 선교센터 |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③ 첫영성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맞아 첫영성체를 한 아이들과 신 스페란자 수녀 간또 그란데 마이 나 이 공소 2025. 12. 8, ④ 방학식과 성탄 인사 아이들과 성탄 인사를 하고 있는 송 리사 수녀 산마르틴 공부방 2025. 12. 19, ⑤ 성탄 잔치 Acciona 회사 주최로 20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산마르틴 공부방 2025. 12. 13.



❶ 화빈대 한국어 수업 2025. 10. 15. ❷ 시각장애시설 낮 흥(Nhat Hong) 아이들의 추석 노래 선물 호치민 수녀원 마당 2025. 10. 5.

| 호치민 | 김미라 마리앤 수녀, 김재숙 시릴로 수녀
| 다낭 | 김희자 마리뤼다 수녀, 백미현 글라라 수녀



③ 성탄선을 나눔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호치민 분원 동네 공부방 아이들 2025. 12. 20. ④⑤ 이주민 아이들을 위한 성탄 파티 탄 호아 성당 강당(식당) 2025. 12. 12.



① 종교국 초청 종교 지도자 모임 딸띠꼬르간 돔 드루주베(우정의 집) 2025. 10. 22. ② 세레대(성수대) 청소 해외 선교 실습 중인 서울대교구 신학생 윤진욱 이사야(왼쪽), 김희준 빅토르(오른쪽)와 함께 딸띠꼬르간 성당 2025. 10. 23.~11. 9. ③ 성탄 음식 나눔 한글 공부하는 고려인들과 공부방에서 2025. 12. 27.



❶ 우슈토베 고려인 및 극빈 가정 식료품 나눔 2025. 12. 22.

제의제작실/재봉실

손으로 전하는 복음 전례를 입히고 일상을 껴매다

탐방·정리 | 성모자매회

수도원의 하루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아침 기도와 미사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때 본원 한쪽에서 바늘과 실을 손에 쥐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기도가 시작된다. **제의제작실/재봉실**-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복음 선포라는 하나의 소명으로 모인다.



최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제의제작실/재봉실 수녀들

(왼쪽부터 최 요한우술라 수녀, 정 심포로사 수녀, 신 은경로사 수녀, 윤 칸델라 수녀, 오 베닝나 수녀, 박 요한마들렌 수녀, 한 요한비안네 수녀, 김 도비아 수녀)

사명과 정체성 : 다른 옷, 같은 방향

제의제작실은 수도회의 안과 밖을 잇는다. ‘함께사는 자매로부터 시작하여 만나는 모든이에게’ 라는 설립문헌의 복음 선포 정신에 따라 수도회의 봉쇄 구역인 내부 사도직의 자리에서 공동체에 봉사하고, 사도직 현장의 전례를 위해 사제나 본당을 위한 제의와 영대, 제대포, 성작 수건, 성체포, 개두포, 고해성사 영대, 장백의, 약식 제의 등의 전례용품을 만든다. 과거 이곳은 수련자들의 정서적 활동을 돕고 노동을 체험할 수 있는 수련의 장이었지만 수련자가 줄어들어 따라 증원된 서원 수녀들이 작업한다.

제의제작실 작업은 100퍼센트 수작업이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를 놓고 매듭을 맨다. 오현주 베닝냐 수녀, 정순남 심포로사 수녀, 윤병렬 칸텔라 수녀, 신은경 은경로사 수녀, 한명숙 요한비안네 수녀의 서로 다른 재능이 자연스



수를 놓고 있는 윤 칸텔라 수녀(왼쪽)와 매듭을 매는 한 요한비안네 수녀(오른쪽)

럽게 엮인다. 누군가는 수를 놓고, 매듭끈을 짜고, 누군가는 매듭을 맨다.

제의제작실에서는 주문 제작한 제의를 판매한다. 특히 매듭 제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만의 자랑이며, 원하는 사이즈로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성작 수건도 특화된 제품이다.

재봉실은 수도 공동체 내부를 위한 일을 한다. 최영옥 요한우술라 수녀는 재봉실의 소임을 생활지침서의 한 문장을 빌어 설명한다.

“수도복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회원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봉헌된 사람의 상징이고, 청빈을 사는 방법입니다.”

재봉실에서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수도복, 속치마와 속바지, 머릿수건과 속모자 등의 제작은 물론 수선까지 수도 생활의 표징이 되는 의복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외부에서 바느질을 해오는 작업도 있지만, 재봉실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많다. 김옥익 도비아 수녀, 박소현 요한마들렌 수녀가 함께 이 소임을 맡고 있다.

재봉실의 일은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수도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도직 중 하나이다.



제의제작실/재봉실에서 일하는 모습

제의제작실에서 만든 제의는 제대 앞을 향하고, 재봉실에서 만들어지고 수선되는 옷은 수도회 공동체 수녀들의 복음 선포 현장을 향한다. 쓰임의 장소는 달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소명을 조금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일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도직이라는 점에서도 꼭 닮았다.

하루 일과 : 기도와 소임 사이에서

정해진 소임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일상적으로는 재봉실의 일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제의제작실은 마감이 정해진 외부 일이라 재봉실 수녀

들의 도움을 가끔 받는다. 대개는 침묵 가운데 일을 하지만 피정 강의나 강론 영상을 들으며 일할 때도 있다.

반복되는 같은 일이지만 그렇기에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특별한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손끝에는 이미 기도와 봉헌의 마음이 담긴다. 그래서 신 은경로사 수녀는 말한다. “본원에 살면서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이 공동체는 마음결이 달라요. 서로 덮어 주고, 가르쳐 주고, 감싸 줘요.”

최 요한우술라 수녀도 하느님께서 주신 각각의 재능으로 여덟 명이 함께 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서로 도와 금세 해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인다.

보이지 않는 손의 복음

제의제작실/재봉실은 수도회 안에서 ‘또 하나의 기도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함을 느낀다. 아직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이곳의 손길은 기도가 되어 흘러가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사제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루를 온전히 봉헌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제의제작실에서는 사제의 미사를 떠올리며 매듭을 매고 수를 놓으며, 재봉실에서는 수도복을 만들고, 고치며 이 옷을 입을 동료, 선후배 수녀들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이렇게 만든 옷을 입고, 전례 용품을 사용하는 사제와 수녀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수녀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기도와 정성으로 미사가 완성되고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다.

보람, 그리고 고민

“구약성경에 사제를 위한 제의 만드는 부분을 보면서 거룩한 옷을 만드는 정성과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부님들이 이 옷을 입고 미사를 하시니까요.”

제의제작실을 맡고 있는 오 베닝나 수녀의 말이다.

제의를 만드는 수녀들은 하나같이 “완성된 제의를 보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풍요롭고, 그걸 입고 미사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아요.”라며 제의 제작의 중요성과 보람을 말한다. 그러기에서 바늘 한 땀, 매듭 하나도 대충 할 수 없다. 제의를 만든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넘어 책임을 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을 땐 과감하게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힘들지만 최상의 제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이곳에서 제작된 제의가 명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봉실 소임을 맡고 있는 박 요한마들렌 수녀도 말한다. 너무 낡고 해진 수도복을 고쳐달라며 들고 오는 수녀들에게는 때로 그냥 새것으로 해 입자고 말하고도 싶지만, 어떻게든 고쳐서 더 입고 싶은 그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고쳐 주곤 한다고.



재단하고 있는 박 요한마들렌 수녀

“물론 청빈한 삶이 몸에 배어 아까운 마음도 있지만, 유독 몸에 잘 맞아 편한 옷인 경우도 있잖아요. 또 서원할 때 입었던 옷이라든가 하는 저마다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옷일 때도 있고요.”

제의제작실/재봉실은 타고난 재능은 물론 집중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도직이다. 재능과 더불어 경험을 두루 갖춘 노년기 수녀들이 빈자리를 채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꾸려가고 있지만 재능이 있어도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젊은 수녀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하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자랑 구름무늬 매듭 제의

앞으로의 계획

매듭 제의는 고급스럽게 잘 만든 제의를 넘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만의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구름무늬 매듭 제의는 우리 수도회의 자랑이다.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당시 시성식 제의를 제작하면서 시작한 이 매듭 제의는 국가 무형문화재 매듭장 고(故) 김희진 명예 보유자가 박물관을 돌며 찾아낸 옛 왕의 문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바느질과 매듭, 가장자리 장식까지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구름무늬 매듭 제의는 영원한 도

움의 성모 수도회에서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이 매듭 제의를 수도회 고유 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 특허 출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독점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의가 지닌 영적·수도회적 의미가 왜곡되는 일 없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오 베냐냐 수녀는 얼마 전부터 출판사 ‘성서와함께’에 등록되어 제의 및 전례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홍보 계획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재능과 관심을 가진 봉사

자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고요한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제의제작실/재봉실. 그러나 사제와 수도 공동체 회원들이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인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역할로 그러나 한마음으로 천을 자르고, 한 땀 한 땀 꿰매고, 수를 놓고, 매듭을 매며 기도로 하루를 봉헌한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사제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에 매일 아침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 베닝나 수녀

“후배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 심포로사 수녀

“지원자 때부터 수를 놓았는데 제가 수놓은 제의를 입은 사제들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적입니다.”

윤 칸델라 수녀

“우리 수도회에서 만든 제의와 전례 용품

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이 축일을 맞은 신부님께 전례 용품을 선물해도 좋지 않겠어요?”

신 은경로사 수녀

“제의 맞춤 일이 있으면 꼭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요한비안네 수녀

“모든 수녀들이 각 소임지에서 저희가 만든 옷을 입고 소신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최 요한우슬라 수녀

“수도회에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사도직이 운전, 조리, 그리고 바느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소임이 바로 바느질이라고 하죠.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박 요한마들렌 수녀

“수도복을 입으며 하는 ‘옷을 입으면서’의 기도를 옷을 만들면서도 하죠. 오늘도 주님께 봉헌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재봉실은 그 마음으로 고요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걸 많이 느껴요.”

김 도비아 수녀



한마음 한뜻

희망이 피어나는 데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당신'이 더해지고,
또 다른 '당신'이 모여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서전
《희망》중에서



국내 및 해외 선교 후원자 피정
본원 성당 2025. 12. 14.

수도회 소식

대림 맞이
말씀 전례
2025. 11. 29.



▲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시기 첫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 전례를 했다.

성탄
선물 준비
2025. 12. 10.



▲ 수녀들이 농사 지어 수확한 쌀을 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장했다.

입회식
2025. 12. 13.



▲ 새 식구 이유경 님프나 자매의 입회를 환영하는 수련소 가족들

후원자
피정
2025. 12. 14.

▶ 우리 수도회 국내 및 해외 선교를 후원해 주신 분들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1일 피정을 했다.



성탄 밤미사
2025. 12. 24.



▲ 세상의 어둠을 밝혀 주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 본원 식당에서 은인들, 신자들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 하례식
2026. 1. 1.



▲ 2026년 신년 하례 미사를 봉헌하고, 여러 사도직에 파견 중인 회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 우리 수도회 문서 선교 사도직 '성서와함께' 직원들과 수녀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종신 서원식
2026. 2. 2.



- ▲ 이기헌 베드로 주교 주례로 3명의 수녀들이 종신 서원식을 했다. 수녀들은 종신토록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정결, 청빈, 순명의 삶을 살기로 공동체 앞에서 서원했다.

성모자매회 소식

정기총회 및 회장단 선거

2025. 12. 8.



▲ 12월 월봉헌일에 제54차 정기총회 및 제22대 회장단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 이미희 세레나 자매는 선거 결과를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에게 상정하여 승인받았다.

▶ 제22대 회장단으로 선출된 김지선 필로메나 회장(재선임)과 제1부회장 엄정미 보나 자매, 제2부회장 홍미영 안나 자매가 자매회원들에게 인사했다.



▲ 자매회원들은 정기총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기도서와 회칙 커버를 선물로 받았다.



원로 사제
방문
2025. 12. 10.

◀ 성모자매회 설립 때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원로 사제 김수창 야고보 신부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년 하례식
2026. 1. 12.



- ▲ 새해 첫 월봉헌일을 맞아 미사 후 수련소와 서원 수녀들의 노래에 맞추어 서로를 축복하며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 ▶ 2026년 첫 강의에서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아가는 복된 여인의 삶으로 자매 회원들을 초대했다.



준회원식
준비 피정
2026. 2. 7.



▲ 준회원식을 앞둔 자매들이 준비 피정 중에 기록보존실 조예진 순선스텔라 수녀로부터 '재속회와 성모자매회'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월봉헌일 및
준회원식
2026. 2. 9.



▲ 월봉헌 미사 중 거행된 준회원식을 통해 박 미숙 비비안나 자매 외 8명의 자매들이 준회원이 되었다.

◀ 오후에는 배준희 준희안나 부총원장 수녀가 '창조 신앙'에 대해 강의했다.

임원 피정
2026. 1. 24.



◀ 제15대 임원단 피정이 마리아 피정센터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에서 진행되었다.

▶ 성모자매회 부산지부 담당 수녀로 5년 동안 소임해온 이경옥 안토니나 담당 수녀가 이임하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월봉헌일
2026. 1. 26.



| 간加里 |

▶ 월봉헌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친 후, 시원한 포도밭 그늘로 자리를 옮겨 모임을 계속 이어갔다.

월봉헌일
2026. 1. 21.



월봉헌일
2025. 12. 5.



◀ 요셉동 경당에서 월봉헌 미사 후, 아야꾸쵸 교구 주교좌성당 세살 주임신부와 신학생, 자매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비야 엘 살바도르 |

▶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월봉헌일에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며, 첫 서약 후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월봉헌일
2025. 12. 9.



월봉헌일
2026. 1. 13.



◀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의 축복받은 성경 읽기-창세기 안내 강의 후, 참석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 깐또 그란데 |



▲ 자매회원들이 제비뽑기로 서로의 마니또를 정하고, 선물 교환 등 마니또를 위한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월봉헌일
2025. 12. 7.



▲ 가난한 어머니 마리아 공소에서 대림환을 그리고 대림초에 색을 밝히며 각자의 지향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시애틀 |

정기총회 및
회장단 선거
2025. 12. 21.



▲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제14대 지부장으로는 안명순 말가리다 자매가 선출되었고, 시애틀 부지부장은 안재향 수산나 자매, 타코마 부지부장은 최순선 헬레나 자매가 선출되었다.

월봉헌일
2026. 1. 18.



◀ 시애틀 성당 교리실에서 새해 첫 월봉헌을 마친 자매회원들이 신년 맞이 웃놀이를 했다.

| 남가주 |

월봉헌일
2026. 1. 18.



▲ 남가주 성서모임센터에서 열린 새해 첫 월봉헌일에 장희영 수산나 자매가 입회했다.

부르심에 응답한 첫걸음 첫 봉사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1,10

글 | 김영옥 엘리사벳(성모자매회 회원)



봉사자로 참여한 수도원 체험 피정

지난해 12월 첫 토요일, 성모자매회 회원으로 수도원 체험 피정에서 수녀님들을 도와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봉사자로 함께한 그 시간, 나 또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품 안에서 주님께 향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음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피정에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첫 만남의 순간부터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도와 침묵, 그리고 잔잔한 나눔 속에서 봉사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되어 머물며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었다.

첫 봉사라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내가 돕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작은 일 하나도 성모님께 맡기며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 나 자신이 더 큰 은총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기도와 침묵 속에서 피정에 참여한 분들이 일상에서의 무거웠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모습을 보며 성모자매회 회원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섬김은 크지 않아도 되고, 말은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저 정성과 존중으로 함께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봉사가 될 수 있음을 그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의 품 안에서 함께한 시간

오늘의 첫 봉사는 성모자매회 안에서 더 크고 깊게 성장하도록 나를 이끄는 하느님의 잔잔한 초대였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서 머무는 이곳에서 한걸음 내딛는 나의 작은 발걸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서툰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은총의 길을 열어 주시고, 성모님께서 나의 걸음을 다정히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한다. 나 또한 수도원 체험 피정을 찾은 분들처럼 성모자매회 회원으로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주님, 제게 맡겨 주신 작은 봉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저에게는 회개의 길, 감사의 길, 은총의 길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오늘도 저를 당신의 품 안에 숨겨 주소서. 아멘.



제150차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 시작 전 봉사자로 참여한 성모자매회 회원들과 담당 수녀가 기도하고 있다. 2025. 12. 8.



피정에 함께할 수녀들과 자매회원들 소개



배식 봉사 중인 자매회원들



수도원 체험은 매월 첫 토요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주최하는 하루 일정의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을 떠나 수도자들의 기도와 침묵을 경험하고, 말씀과 찬미와 미사를 통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깊이 만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행복을 맛보는 시간을 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

강 준	김 선	김시연	김종인	민병임	배은희	신기철	오창선	이경희	이영빈	이현정
강대환	김 훈	김안선	김진원	민병희	배재현	신명지	오해영	이관우	이영숙	이현희
강미령	김경숙	김연숙	김진한	민영석	백성현	신병민	오현정	이귀자	이영원	이혜경
강미진	김금련	김영경	김진혜	민옥기	백인자	신병학	오현주	이규화	이영자	이혜주
강민경	김기복	김영숙	김철익	박기라	백주희	신상희	원미자	이그림	이영주	이혜진
강상옥	김기환	김영애	김춘희	박기분	봉효진	신성옥	유재숙	이까리마스	이영환	이화모
강선옥	김남수	김영옥	김태권	박기자	부정민	신신애	유정선	이남순	이용순	이화진
강선이	김남필	김영자	김태호	박남희	부정선	신영옥	유정현	이덕아	이우창	이희병
강설순	김도연	김옥순	김해영	박미숙	서경옥	신정택	유정희	이명분	이은경	이희정
강영옥	김동순	김옥자	김향복	박미향	서난희	신지현	유종례	이명옥	이은정	인 숙
강영주	김말순	김용각	김향옥	박상규	서명동	심금화	유지영	이명혜	이은홍	임규상
경혜자	김명애	김용규	김현경	박선영	서미정	심상균	유지혜	이문희	이은희	임명숙
고경옥	김명희	김유미	김현동	박설희	서복순	심재경	유진희	이미경	이재구	임미숙
고금주	김미경	김유정	김현미	박성점	서연희	심현철	유찬영	이미나	이재빈	임민아
고순례	김미원	김윤숙	김현숙	박소연	서주혜	안대인	유태안	이미령	이재숙	임상무
고예리	김미자	김윤순	김현아	박소영	선군자	안선영	유한진	이미선	이정석	임석수
고은실	김미정	김은경	김혜숙	박소현	성하림	안예진	유현중	이미희	이정숙	임순영
고현순	김미현	김은미	김호종	박수진	손병윤	안윤미	유희정	이병윤	이정연	임승옥
고희선	김미희	김은섭	김효선	박영진	손보스코	안주현	윤경임	이상분	이정현	임영규
공석초	김범수	김은순	김효정	박영철	손상운	양경철	윤공순	이상일	이정희	임정화
곽숙자	김병이	김은아	김희숙	박은경	손승숙	양성후	윤규섭	이석순	이제식	임지원
곽신영	김상희	김은영	김희순	박인철	손윤모	양영은	윤대수	이선근	이종원	임화용
곽정희	김석용	김은정	나승경	박재숙	손인숙	양정희	윤대인	이선용	이주애	장년수
곽화숙	김석준	김은희	남기란	박정숙	손주영	양현숙	윤명자	이선주	이주원	장보향
구미희	김선옥	김익수	남애란	박정자	손한수	엄경용	윤미숙	이선희	이주희	장복남
구현민	김선희	김인배	남윤진	박주성	송명희	엄해옥	윤선미	이성철	이중길	장은유
권 진	김성천	김재숙	남일현	박준호	송미경	여효정	윤성업	이세영	이지선	장재연
권경숙	김소각	김정란	노치권	박준희	송민정	오나래	윤시림	이소연	이지영	장재원
권민정	김소정	김정미	동경자	박지영	송영래	오두현	윤익진	이수진	이지희	장주혜
권분연	김수연	김정선	동복원	박참슬	송윤경	오성애	윤재갑	이수현	이진태	장현수
권선미	김수진	김정숙	류원백	박형호	송윤복	오승목	윤재성	이순영	이춘화	장효진
권영기	김 숙	김정순	마희섭	박혜경	송은주	오윤경	윤현옥	이순자	이태원	장후남
권태영	김숙희	김정옥	문경화	박혜신	송정자	오은미	윤혜련	이승분	이항구	장희운
권혜란	김순례	김종률	문복자	박홍재	송주라	오은영	윤혜연	이연서	이헌재	장희정
권혜진	김순희	김종석	문정순	박효미	송한준	오정애	윤홍자	이연심	이현경	전영미
권화집	김승현	김종욱	문태성	배순원	신 숙	오진숙	윤희정	이영미	이현숙	전자영

전정민	정민희	정윤희	조성희	조혜옥	차윤수	최안나	최제원	한기철	허미숙	홍은정
전종성	정선미	정은숙	조순례	조휴동	차효경	최연옥	최지현	한나일	허소현	홍인길
전주리	정설령	정의정	조영광	주비호	채현	최영림	최진옥	한성욱	허정미	홍진숙
전주윤	정성진	정정순	조영섭	주유현	채성희	최영주	최진희	한승현	허희	황규택
전주희	정성희	정창원	조영심	주은희	채윤정	최영혜	최해인	한시학	허희선	황명옥
전춘실	정수훈	정춘자	조영이	주이정	최솔	최영홍	최홍원	한인숙	현복자	황승욱
정광영	정순남	정태아	조영자	주재로	최경옥	최용백	최희순	한재범	현정일	황애현
정난희	정순자	정향희	조영철	진기순	최금란	최유진	추영미	한주욱	현진호	황윤서
정대진	정애경	정현우	조옥현	진영서	최두혁	최윤숙	표순분	한진규	홍도경	황이선
정미다	정연숙	정홍숙	조은경	진영임	최미선	최윤희	하광희	한진선	홍문숙	
정미란	정연택	조경배	조인숙	진정숙	최미수	최은경	하동기	한혜승	홍보근	
정미숙	정영진	조규하	조정순	진정자	최복희	최일혜	하애란	함오식	홍순필	
정민경	정우영	조민행	조현숙	차경자	최순선	최재희	한구병	허남	홍은숙	

(주)알티베이스	천사약국	흑석88차 요한연수
(주)유나이티드	김태연(김지후)	흑석100차 마르코연수
(주)인동FN	김옥순(최기종)	흑석 말씀의 봉사자
(주)지후	마인경(이문철)	이경상 주교
(주)한양정밀	서지현(윤지원)	안상인 신부
(주)홍진경	이두희(조경래)	최우주 신부
대방수산(주)	조인혜(이규용)	로사리오 카리타스
ABC동호회	조예진(김태은 데레사)	부산교구 남산성당
나보타스장학회	조예진(조베로니카)	부산교구 서대신성당
등나무	최경애(김승희)	부산교구 안락성당
로이드선급협회	케빈(재미교포)	부산교구 안락성당 해외선교후원회
리치로지스틱스 이근	Aboitiz Power Corp.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빈첸시오회
마을과아이들	2025년 말씀의 봉사 홍보팀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문우당서점	6지역(수서)말씀의 봉사	부산교구 청학성당
미소회김나현	마태오성서모임(목8동)	서울대교구 강일동성당 성서모임
병원사목위원회	서울2지역 성서모임	서울대교구 대치2동 성당 성서모임
부산성모자매회	수지성서모임	서울대교구 마천동성당 성서모임
사단법인부산광역시행정동우회	창세기직장1반(수서)	서울대교구 발산동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서울성모사목회	청년성서모임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선사모	정릉77차 창세기연수	수원교구 범계성당 21구역
수지 고르다	정릉82차 창세기연수	수원교구 범계성당 빈첸시오회
신기메디텍(주)	정릉83차 창세기연수	의정부교구 백석동성당 빈첸시오회
유일화사	정릉91차 마르코연수	춘천교구 임당동성당 빈첸시오회
일송학원	정릉94차 탈출기연수	한국순교복자수도회(선교실습비)
제이앤지조이엘리	흑석78차 마르코연수	
주식회사정원종합건설	흑석84차 창세기연수	이외 다수의 익명 후원자
주영화학	흑석86차 창세기연수	

국내

영원한도움의성모의집 해돋이공부방

4903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3길 412 (청학동)
T. 051-416-1361

- 김재숙 빅토리아 수녀
M. 010-8977-0243

H.O.M in 수지

168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63번길 10
(동천동)

- 차덕희 알벨또 수녀
M. 010-2920-2746

H.O.M in 사강

1855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129

- 최정희 루치아노 수녀
M. 010-7617-0900

영원한도움 평화센터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51 (혜화동)

- 이선중 로마나 수녀
M. 010-8701-0369

해외



베트남 VIETNAM

호치민

HO CHI MINH

174/35 Tam Châu, Tâ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VIETNAM

- Sr. Mariann Kim, SOLPH(김미라 마리앤 수녀)
M. +84 76 907 4487
E. rose-mira@hanmail.net
- Sr. Su Eun Gemma Jang, SOLPH
(장수은 수은젬마 수녀)
E. sueungemma@hanmail.net

다낭

DA NANG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TP Đà
Nẵng, 550000 VIETNAM

- Sr. Maririta Kim, SOLPH(김희자 마리리타 수녀)
M. +84 90 378 6101
E. kimheeja1214@gmail.com
- Sr. Clara Back, SOLPH(백미현 글라라 수녀)
M. +84 78 949 1860
E. cl583@hanmail.net



카자흐스탄 KAZAKHSTAN

탈디코르간

TALDYKORGAN

Kat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T. +7 7282 245 002

- Sr. EunyoungTheresa Oh, SOLPH
(오은영 은영테레사 수녀)
M. +7 775 960 2731
E. eyt633@hanmail.net

- Sr. Salesia Han, SOLPH(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M. +7 702 196 1770
E. hansalesia@daum.net
- Sr. Jese Shin, SOLPH(신미옥 이새 수녀)
E. jesse594@hanmail.net

페루 PERU

깐가리 CANGARI, HUANTA-AYACUCHO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 cafe.daum.net/solph-peru
E. cangariperu@hotmail.com

- Hna. Marie Hucco Kim(김향련 마리후꼬 수녀)
M. +51 958 733 136
E. mhucco07@gmail.com
- Hna. Clarisa Lee(이순옥 클라리사 수녀)
M. +51 937 411 504
E. rociocielo811@gmail.com

비아 엘 살바도르 VILLA EL SALVADOR, LIMA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T. +51 1 292 2327
H. cafe.daum.net/solph-peru
E. villaperu@hotmail.com

- Hna. Mari Joseph Kwak(곽호임 마리오셉 수녀)
E. mjoseph319@hanmail.net
- Hna. Lisa Song(송선영 리사 수녀)
M. +51 958 736 605
E. lisa0737@naver.com

리마 선교센터 CANTO GRANDE, LIMA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T. +51 1 359 5855

- Hna. Speranza shin(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M. +51 920 753 030
E. smsprz@hanmail.net
- Hna. Immanuel Park(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M. +51 986 501 518
E. manuel592@hanmail.net

필리핀 PHILIPPINES

나보따스 NAVOTAS

San Lorenzo Ruiz Parish(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T. +63 2 8652 7714

H. cafe.daum.net/solphphilppin

- Sr. Gabriela, SOLPH(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M. +63 969 174 6992
E. gabi59@hanmail.net
- Sr. Judith Joung, SOLPH(정명숙 유딧 수녀)
M. +63 939 332 4146
E. ju395@hanmail.net
- Sr. Luce Kim, SOLPH(김민정 루체 수녀)
M. +63 960 554 1272
E. kimluce639@gmail.com
- Sr. Josephine Choi, SOLPH(최지영 요세핀 수녀)
M. +63 928 421 0722
E. josephine.657@daum.net



조향순 소피아, 비에이 Biei Hokkaido, Japan 1997

후원
문의

국 내

02706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정릉동)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T. 02-2171-1657

한진선 요셉데레사 수녀
M. 010-2082-6035
E. srjthan@hanmail.net

-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S.A.
T. +1 714 521 1345

Sr. Emma Jeon, SOLPH
(전배경 엠마 수녀)
M. +1 714 383 3585
E. emma2171@hanmail.net

- 미국에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은 미주지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후원금
송금

국내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038659-00305
국민은행 036137-04-005886
신한은행 100-027-67786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해외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910004-74004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신한은행 140-006-01075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2-18, Solsaem-ro, 15ra-gil, Seongbukgu Seoul 02706, Rep. of Korea
T. +82 2 2171 1500 | F. +82 2 2171 1629